

#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김준호 著

(덕성여대 교수, 사회학과)

## I. 서론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학생들 간에 싸움을 하거나, 학교 주변 불량배들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현상은 요즈음 새롭게 나타난 현상은 아니며 항상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피해가 계속 보고 되면서 학교 주변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비행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되면서 이에 시달린 학생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른 사건마저 발생하면서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95년 여름, 반포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투신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학교 주변 폭력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등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단체가 출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을 받아 대통령이 직접 관계 부처에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촉구하게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경찰, 검찰, 청소년 체육부 등에서 나름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각 부처나 사회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폭력 신고 전화”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신고를 하려는 학생이 “신고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였다』는 명제가 성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못한 가장 중

요한 이유가 ‘보복이 두렵다’라는 것이라면 아무리 신고 전화를 도처에 설치한다고 하여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청소년 야간 통행 금지

법”에 대한 주장도 그 나름대로 설득력이 없지는 않으나 과연 학교 주변 폭력이 야간 10시 혹은 12시 이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범지역이나 유흥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다수의 청소년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마저 제한할 수 있는 야간통행 금지법 역시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였다. 즉 현실을 정확히 알 때,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우선 학교폭력의 실태를 지금까지의 여러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에 대한 학술적인 실태조사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상당한 부분은 경험적 연구 결과에 기반하기 보다는 필자의 경험과 사회학적 상상력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실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될 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1991년 조사를 주로 하였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등 사회단체의 자료와 각종 연구 결과를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 주

각 부처나 사회 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책을 보면 정확한 실태에 기반한 현실적인 대책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당위론에 입각한 것이 많다.

요한 이유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가 5년 전 자료이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각 조사는 모집단, 표본 선정 방법, 설문 내용 등으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실태를 진단한 후, 정부 부처를 위시한 각 단체에서 제시된 대책을 점검하고자 한다.

## II. 학교 폭력의 실태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폭력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학교 폭력이라고 하였을 때 다음의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우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 문제와 폭력이 일어난 장소일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생 신분이며 폭력이 학교 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이와 같은 좁은 의미에서 학교 폭력을 규정한다면 상당수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신분보다는 피해자의 신분을 중심으로 학교 폭력은 규정되고 있다. 즉 가해자가 학

생이건, 주변 불량배이건, 심지어는 교사나 부모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이라면 일단 학교 폭력으로 포함되고 있다. 아울러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역시 학교 내부에서만 일어난 것에 국한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장 광의의 학교 폭력은 학생이 피해를 당한 모든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비교 검토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폭력에 대한 다른 정의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연구”<sup>1)</sup>는 제목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신분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신분이나 발생 장소는 고려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을 청소년 중학생 청소년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생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폭력 범죄피해는 물론이며 재산 범죄와 성범죄 피해를 포함하여 가장 넓은 의미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자료는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수집되었다. 더욱이 이 재단의 자료는 피해자의 부모나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학교 폭력, 즉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 신분이며 사건이 학교 안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 주체가 학교이다 보니 학생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답하였는가에 대한 신뢰도 역시 고려하면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 발표한 자료 역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찰 자료는 주로 경찰이 학교 폭력을 단속하면서 수집된 자료이다. 즉 신고나 자체인지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자료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숨은 범죄(hidden crime)가 적지 않아 이 역시 자료로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자료는 그 나름대로 한계로 인하여 서로 비교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서 학교 폭력 실태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학교 폭력 발생 건수

학교 폭력 발생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료에 따라 그 규정이 다르다는 한계를 염두에 두고 다음을 자료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990년 서울 시내 남녀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이나 밖에서 당한 피해를 살펴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기로 하자.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의 특성은 학교 주변 폭력을 금품갈취, 폭행, 그리고 협박으

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1991

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남자와 여자, 그리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였으며, 여자의 경우는 성과해도 고려하였다. 다음의 표 1은 각 유형별 피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89년 9월부터 90년 9월 1년 동안 금품갈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49명으로

전체 응답학생의 22.6%에 이른다. 이는 지난 1년 동안에 한 반에서 약 10명 정도의 학생이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표 1〉 폭력 범죄 유형별 피해율

유 형	전 체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소 계	남 자	여 자	소 계	남 자	여 자
금품갈취	1,249 (22.6%)	855 (25.9%)	729 (40.7%)	126 (8.5%)	394 (17.6%)	352 (28.7%)	42 (4.2%)
폭 행	766 (14.1%)	435 (13.4%)	374 (21.1%)	61 (4.2%)	331 (15.1%)	300 (24.9%)	31 (3.1%)
협 박	854 (15.8%)	524 (16.3%)	379 (21.5%)	145 (10.0%)	330 (15.2%)	276 (23.2%)	54 (5.5%)
합 계	1,941 (36.1%)	1,254 (38.8%)	998 (56.8%)	247 (17.0%)	696 (32.1%)	594 (50.1%)	102 (10.5%)

이를 학교 유형, 성별로 구분하여 보면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비교했을 때, 중학교에서는 금품갈취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9%이고 고등학생은 17.6%로서 중학생이 더 많이 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이와 같은 차이는 더욱 뚜렷하여 남학생의 피해 비율이 여학생에 비하여 5배 정도가 된다. 가장 높은 피해 경험이 있는 남자 중학생은 40.7%인데 반하여 여자 고등학생은 4.2%로서 거의

10배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부연하면, 남자 중학생의 피해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남자 고등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의 순서로 나타나 남자 중학생에 있어서 금품갈취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폭행은 1년 동안 14.1%의 학생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품갈취보다는 그 비율이 적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폭행의 피해를 학교 유형별

로 구분해 보면 금품갈취와 달리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조금 더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품갈취와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피해율이 여학생보다는 월등히 높아 약 5배 이상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금품갈취가 주로 체격이 적은 남자 중학생이 피해를 당하는 유형이라고 한다면, 폭행은 체격과 관계없이 남자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그 비율은 남자에 비하여 적으나 여학생에게도 적지 않게 폭행을 당한다는 사실은 여학생 사이의 폭력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특히 여학생 사이의 폭력은 남학생에 비해 그 후유증이 더 크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협박의 피해정도는 그 양이나 비율에 있어서 폭행과 유사하다. 854명이 지난 1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전체 학생의 15.8%에 해당한다. 피해정도는 학교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는데, 다른 유형의 폭력범죄 피해와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전체적인 폭력범죄의 피해는 <표1>의 제일 하단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전체피해란 폭력범죄, 즉 금품갈취, 폭행, 협박 이 세 가지 중에서 지난 1년동안 한가지라도 당해본 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다. 이렇게 볼 때 지

난 1년 동안 금품갈취,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한가지라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은 1,941명으로서 전체 응답학생의 36.1%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 학급에서 20명 이상이 지난 1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상당히 우려할만한 비율이라 할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 비교했을 때 중학생은 1,234명(38.8%)이 당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고등학생은 696명(32.1%)이 당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피해를 많이 당함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비교했을 때는 남자와 여자간에 많은 차이가 난다. 남자 중학생의 경우에는 998명(56.8%)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고, 여자 중학생은 247명(17.0%)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남자 고등학생은 594명(50.1%)이, 여자 고등학생은 102명(10.5%)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남자 중학생(56.8%)과 남자 고등학생(50.1%)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한 학급에서 절반이상이 1년 동안 신체적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볼 때 학교 안의 그리고 학교주변의 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까지 와 있으며,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급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표2>을 보면 성적 피해의 유형별 피해비율을 알 수 있다. 성적 피해의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성적 피해는 그 성격상 여학생들만을 상대로 해서 질문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적 피해에 응답한 학생의 전체 합계는 여자, 중·고등학교 학생 2,548명이다.

**5년전에 남녀 중고등학생 중 36.1%나 되는 학생이 금품갈취를 비롯한 범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특히 남자 중학생의 56.8% 즉 반이 넘는 학생이 피해 경험이 있다는 점은 놀라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표2〉 성적 피해 유형별 피해를 당한 비율

	전 체	중 학 생	고등학생
성적희롱	528(21.2)	287(19.2)	241(24.7)
가벼운추행	785(31.5)	378(25.3)	407(40.8)
심한추행	63(2.5)	32(2.2)	31(3.1)
강 간	15(0.6)	10(0.7)	5(0.5)
성범죄전체	922(37.8)	474(32.8)	448(45.8)

\* ( )안의 %을 구함에 있어서 분모로 사용한 것은 유형별 응답자의 수에서 무응답을 제외한 수, 즉 그 문항에 대해서 직접 응답한 사례수를 이용했다. 예를 들어 전체사례에서 성적희롱의 경우에 21.2%의 분모로 사용된 것은 전체 여학생 표본 2,548명에서 무응답 60명을 제외한 2,488명이다.

성적 피해의 피해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성적 희롱을 당해본 학생은 21.2%이며 가벼운 추행을 당해본 적이 있는 학생은 31.5%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2.5%로 떨어지고, 강간의 경우에는 0.6%로 낮아진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성인 여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심한 추행, 강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강간을 당한 적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간을 당한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로 적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전체적인 피해 비율은 약간 높게 나왔지만, 여학생들이 주로 당하는 피해의 유형은 성적 희롱이나 가벼운 추행 등의 사소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 어떠한것 하나라도 피해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37.8%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비교할 때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피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범죄 전체피해는 중학교가 32.8%, 고등학교가 45.8%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형태는 성적 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모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등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더 성숙하였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교 주변 폭력이 5년전에도 매우 심각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남녀 중고등학생 중 36.1%나 되는 학생이 금품갈취를 비롯한 범죄에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며, 특히 남자 중학생의 56.8% 즉 반이 넘는 학생이 피해 경험이 있다는 점은 놀

라운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학교 폭력을 가장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가해자의 신분이나 발생 장소 역시 학교 안은 물론이고 학교 주변까지를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서울에 국한하여 이러한 높은 비율이 나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가장 유사한 조사가 최근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실시되었다.<sup>2)</sup> 이 연구는 전국적으로 30개 학교를 선정하여 총 1,60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996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되었다. 특징은 우선 전국적인 조사라는 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보다 더 넓은 의미의 학생들의 폭력 피해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가해자를 학생이나 불량배에 한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가해자의 범위를 부모와 친척, 학교 교사까지 확대하였다. 즉 학교 폭력 피해라기보다는 청소년 폭력피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표 3은 “여러분은 지난 해 동안 맞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매를 맞은 경험이 있었던 학생이 전체의 56.8%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피해 경험이 있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으며 학교별로 보면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중학교가 국민학교보

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 보면 예상과 같이 대도시가 중소도시보다 그리고 중소도시가 읍면보다 더 많다.

〈표 3〉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맞은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 다	없 다	무응답	계
전 체	56.8	38.0	5.2	100.0(1607)
성 별				
남	60.7	34.5	4.8	43.9(705)
여	54.5	40.7	4.8	47.3(759)
학교별				
초등	43.1	42.6	14.3	12.8(202)
중	57.5	38.2	4.3	47.1(756)
고	63.0	34.4	2.6	33.8(540)
지역별				
대도시	62.7	33.5	3.8	29.5(474)
중소도시	59.3	33.5	7.2	30.4(489)
읍 면	52.2	44.2	3.6	31.0(498)

이 결과를 형사정책연구원 결과와 비교하여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1989년에 조사한 반면 본 연구는 1996년에 실시되어 지난 7년간의 변화를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두 연구는 조사설계가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우선 전체 피해율을 보면 형사정책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칭함)

2) 청소년 대화의 광장,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제 11회 특수상담사례연구 발표회 자료집, 1996

의 결과는 금품갈취, 폭행, 협박을 합한 것이 36.1%인데 반하여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하 광장이라 칭함) 결과를 보면 매 맞은 것만 56.2%로서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연구원 자료를 보면 폭행(매맞은 것과 가장 유사한 피해)은 14.1%에 불과하다. 이 결과를 지난 7년간 그만큼 증가했다고 결론짓기는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광장 조사는 가해자를 부모, 친척, 학교 교사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맞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교사가 가장 많아 전체의 31.8%를 차지하였고 다음이 부모로서 25.2%이다. 여기에, 형제, 친척, 동네 어른 등을 합하면 전체 가해자(?)의 약 75%가 좁은 의미의 학교 폭력 가해자에서 제외된다. 좁은 의미의 가해자라 볼 수 있는 친구, 선배, 후배, 교내 불량배, 본교 퇴학생 또는 정학생, 동네 불량배만을 고려하며 보면 26.7%이다. 따라서 전체 피해 56.8% 중 26.7%인 15.17%가 학교 폭력 피해 경험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수치(15.7%)는 연구원의 전체 피해(금품갈취, 폭행, 협박)인 36.1%보다는 적고 폭행 피해의 14.1% 보다는 크다. 또한 연구원 자료는 서울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광장 자료를 대도시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이 수치는 조금 더 커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 약 2% 정도 증가한 결과를 놓고 폭행 건수가 증가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힘

드나 학교 폭력이 적어도 감소한 결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아울러 광장 자료의 의미는 학생들의 폭행 피해의 대다수가 다른 학생이나 불량배가 아니라 오히려 학교 교사나 학부모, 형제 등이라는 점이다. 물론 “교사나 부모의 매”를 모두 폭력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으며 훈육적 체벌일 것으로 추정되나 그 중 상당수는 훈육적 체벌과 폭력의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여 보면 학교 폭력의 가해자를 불량배나 동료 학생으로 한정할 수만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폭력은 습득된다”라는 일반적인 명제를 생각하여 보면 폭력적인 학생들이 결국 집안에서 부모와 학교에서 교사에게서 폭력을 배울 수 있는 가능성마저 시사해 준다고 보면 광장 조사의 의미는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광장 자료는 연구 대상을 “매”로 제한하여 요즈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주된 관심인 “금품갈취”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화된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금품갈취에 있다. 이미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학생들간의 폭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나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현상은 요즈음에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며, 대다수의 폭행 역시 금품갈취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보면 금품갈취를 제외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큰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학교 폭력을 발생 현황을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발표를 보자. 시\*도 교육청에서 1995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sup>3)</sup>

〈표 4〉 학생 폭력 피해 현황

학 교	금품 피해	폭행 피해
국민학교	9,432명	43,738명
중 학교	252,190명	103,829명
고등학교	77,136명	49,215명

우선 이 교육부 자료는 전국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전국 모든 학교에 대한 조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해율을 계산하는데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1995년 현재 중학생 수를 대략 2백만 명으로 추산하여 보면 약 8% 정도의 학생들이 금품 피해 경험이 있으며 약 5% 정도가 폭행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고등학생은 약 3% 정도가 금품 피해, 그리고 1.5% 정도가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학술 조사 결과와 매우 적은 수치이다. 이러

한 결과는 아마도 다음의 두 가지에서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첫째, 교육부 자료는 가장 협의의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라는 점이다.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폭력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피해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한 모든 피해를 솔직히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찌되었건 학술적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1/10에서 1/5 정도로 나타난 결과를 매우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 2. 학교 폭력 발생 장소

그러면 이러한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알아보자. 발생 장소가 시사하는 의미는 주로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지 혹은 밖에서 일어나는가에 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가 많은 반면,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서로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 폭력은 가정 폭력이나 군대 폭력 등과 유사성이 높다. 특히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가정 폭력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3) 자료 : 교육부 "주요 현안 보고", 1995

폭력의 심각성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같은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피해자가 폭력을 피하기 매우 힘들다는 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가해자의 마음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다. 부연하면 가해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느 때라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항상 공포에 시달린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할 길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가정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아버지라면 누구에게도 호소할 길이 없으며, 설사 형이 괴롭힌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출타 중에 일어난 폭력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였다간 더 큰 보복이 예상됨으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가 적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학교 폭력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 폭력의 발생 장소를 알아보는 작업은 의의가 있다.

다음의 표 5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이다. <표5>를 보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폭력범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당하는 장소는 주택가 노상 또는 골목길이다. 약33.7%가

**금품갈취는 학교주변 노상이나 전자오락실 등의 유흥장소, 즉 학교 밖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많으나, 폭행은 교실,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피해를 당한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학교주변 노상(13.7%), 학교 안(11.2%)이다. 그리고 전자오락실, 만화가게 등 학교주변의 유흥업소에서도 약10%정도의 학생들이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볼 때, 모든 유형에서 주택가 노상이나 골목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장소이다. 그 밖의 장소에서는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금품갈취는 학교주변 노상이나 전자오락실 등의 유흥장소, 즉 학교 밖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많으나, 폭행은 교실, 운동장 등 학교 안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박은 주택가 노상, 또는 골목길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다른 두 피해유형보다 적게 나타나고, 운동장 등 학교 안이나 학교주변 노상에서 피해를 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형태는 중·고등학교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5〉 폭력범죄 피해장소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계
	금품갈취	폭 행	협 박	금품갈취	폭 행	협 박	
교실안	8 (1.6)	29 (14.7)	27 (9.3)	12 (5.5)	30 (16.4)	20 (11.0)	126 (7.9)
운동장 등 학교안	16 (3.1)	34 (17.3)	38 (13.1)	10 (4.5)	50 (27.3)	30 (16.6)	178 (11.2)
학교주변노상	92 (17.9)	15 (7.6)	43 (14.8)	23 (10.5)	20 (10.9)	25 (13.8)	218 (13.7)
학교, 도서관, 독서실	42 (8.2)	9 (4.6)	23 (7.9)	18 (8.2)	7 (3.8)	7 (3.9)	106 (6.7)
전자오락실,만화가게	59 (11.5)	16 (8.1)	20 (6.9)	26 (11.8)	11 (6.0)	10 (5.5)	142 (9.0)
카페,술집,디스코장	4 (0.8)	0 (0.0)	4 (1.4)	3 (1.4)	5 (2.7)	1 (0.6)	17 (1.1)
극장,공연장	2 (0.4)	0 (0.0)	1 (0.3)	1 (0.5)	0 (0.0)	1 (0.6)	5 (0.3)
지하철,버스안	19 (3.7)	3 (1.5)	9 (3.1)	7 (3.2)	2 (1.1)	11 (6.1)	51 (3.2)
변화한 노상	15 (2.9)	1 (0.5)	3 (1.0)	11 (5.0)	4 (2.2)	4 (2.2)	38 (2.4)
주택가 노상, 골목길	206 (40.0)	71 (36.0)	82 (28.3)	83 (37.7)	36 (19.7)	56 (30.9)	534 (33.7)
상가 또는 지하도안	16 (3.1)	8 (4.1)	18 (6.2)	9 (4.1)	1 (0.5)	6 (3.3)	58 (3.7)
공원,유원지등 야외	36 (7.0)	11 (5.6)	22 (7.6)	17 (7.7)	17 (9.3)	10 (5.5)	113 (7.1)
계	515 (100.0)	197 (100.0)	290 (100.0)	220 (100.0)	183 (100.0)	181 (100.0)	1586 (100.0)

예상한 바와 같이 금품갈취는 학교 밖, 폭행 등은 학교 안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나,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폭력 피해 유형과 상관없이 주택가 노상, 골목길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갈취 경우에는 주택가 노상, 골목길과 학교 주변노상을 합하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에서부터 집에 가는 동안에 금품갈

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등교 길보다는 하교길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하교길에 경찰이나 자원 봉사 요원, 학부모, 교사가 중심이 되어 강력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화의 광장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표 6은 폭행이 일어난 장소를 요약한 것이다.

〈표 6〉 어디서 때렸습니까?

구 분	전 체	남 자	여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집	17.7%	17.8%	19.7%	16.3%	19.6%	16.9%
집근처동네	4.3	5.6	3.1	4.5	4.1	4.6
집에서멀리	1.6	2.6	0.9	1.0	1.1	2.6
교실	18.2	21.9	19.1	12.4	22.4	17.0
학교화장실	2.3	3.4	1.8	1.0	3.2	1.7
교내운동장	4.5	6.0	2.4	8.4	4.8	3.5
학교주변	6.8	8.5	6.4	5.0	7.7	6.9
학교오가는길	3.6	3.2	4.0	2.5	4.1	3.0
으스스한골목	1.9	2.1	2.1	0.5	1.5	2.8
공원,유원지	2.0	3.5	1.2	1.0	1.2	3.7
야산	1.2	1.9	0.9	1.0	1.1	1.7
노래방,비디오방	1.4	1.9	1.6	0.5	1.2	2.5
빈집,자취방	0.9	1.5	0.9	0.0	1.2	1.1
기타	3.1	3.1	3.6	3.0	3.4	3.1

전체 응답자 중 25%가 학교 내부 (교실, 학교 화장실, 교내 운동장)에서 매를 맞았다고 한 반면, 75%는 학교 밖에서 폭행을 당했

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만 비교해 보았을 때,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보다 학교 내부의 비율이 더 낮다. 더욱이 때린 사람 중

상당수가 교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학교 내부의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학술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어찌 되었건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는 장소는 주로 학교 밖이며 학교 안에서 당하는 비율은 1/3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경찰이 1995년 9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자체 단속한 결과를 보면 교내가 피해장소인 경우는 전체의 10%에 그쳤고, 나머지는 교외로 나타났다. 교외 중 노상이 전체의 5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는 유원지, 야

외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와는 달리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정 반대의 결과를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서 상담자의 호소 내용을 피해 발생 장소 별로 집계한 것이다. 학교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 거의 70%나 되는 반면, 학교 밖은 30%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학술적인 연구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결과가 경찰이 최근 발표한 것에도 나타나고 있다.

〈표 7〉 학교 폭력 발생 장소 (전체 374건)

학교 내	등하교 길	집 근처	학원가	독서실	놀이터	오락실	유홍가
68.4%	12.6%	10.2%	4.5%	0.8%	1.6%	0.3%	1.6%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학교 폭력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여지나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의 자료를 보면 학교 안에서 자행되는 학교 폭력이 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학교 밖에서 당한 피해는 비면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사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여도 경찰에 신고하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청소년 폭력 예방재

단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해 보면 비록 적은 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더 심각할 가능성을 무시 못 할 것이다.

### Ⅲ. 학교 폭력의 대책

지금까지 학교 폭력의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폭력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정, 학교, 사회의 문제가 청소년들이 폭력을 휘두르게 만드는 직·

간접적인 요인이 된다. 어른들은 세상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했다고 탓하기만 한다. 예전 같지 않은 아이들,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건방진 아이들만을 나무랄 뿐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꾸짖는 어른 자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와는 무관한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어른 자신도 세상의 피해자라고 변명하고 있다. 오늘의 세상을 이처럼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이다.

물론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전에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미봉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운동 등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책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대책은 다음의 3가지 방향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 1. 피해학생 구제

학교 주변에서 폭력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혹은 “고자질하는 못난 놈” 등의 위협과 놀림 때문에 부모에게조차 말을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면접성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 보복을 당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경우에 신고하기는 매우 힘들다.**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상담실이 보다 더 활성화되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사회문제화 된 ‘이지메’에 대한 대처를 주로 학교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상담실은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교사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을 담당하는 일반 교사들에 대한 수업 경감 등의 배려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담실을 기피하는 경향마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상담실이 제대로 운영되기 바라기는 힘들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적어도 한 학교에 1명의 전임 상담 전문가가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각종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문제학생을 지도하거나 학생들의 고민을 도와주고 있다.

이미 수차 언급했지만 학교 폭력에 대한 해결의 출발은 피해자의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믿을만한 대상이 없을 경우에 신고를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며, 가정 폭력과 마찬가지로 신고되지 않는 학교 폭력이 드러나기는 매우 힘들기 때문에 학교에 신뢰할 만한 상담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경찰이나 검찰 등에 신고할 수도 있겠

으나 학생들이 사법당국에 신고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여러 무리가 따른다. 자기들이 받는 피해나 괴로움이 과연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정도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설사 신고하려고 하여도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상담실과 학생들이 존경할 수 있는 상담교사가 학교 폭력 추방에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결성되어 학교에도 말못할 사정이 있는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가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학교 상담실이 아무리 활성화 된다고 하여도 학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안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이 개입될 필요가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곧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아닐 것이다. 학교 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의 특수성은 가해자 역시 청소년이며 보호대상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은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사법처리가 된 가해 학생은 비행소년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받게 되며, 그 결과 더 심각한 비행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없지 않다. 비행소년에 대한 사법처리는 최후의 수단이지 최선의 수단은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청소년 선도 사회단

체가 학교와 사법 당국간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상담실에서 처리하기 힘든 사안을 보다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그리고 사법당국과 신뢰와 협조 관계를 갖고 있는 선도 단체의 전문가들이 처리해야 한다. 이들이 해야 될 일로서 피해자가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계된 의사를 소개하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연계해 주며,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학교에서 처리하기 힘든 심각한 문제를 각종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피해 학생은 구제하고 가해 학생은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 고리를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은 형사사법적 처리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 처벌에만 그친다면 비행을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찰 내부에 소년사건 담당부서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 폭력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 사회과학 전공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각종 청소년 선도기관에서 도움 요청이 있으면, 사법처리 보다는 선도와 화해를 일차적인 목표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청소년 선도 단체에서 할 수도 있으나 청소년 선도 단체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형사 사법기관과는 달리 법적인 권한이 없다. 따라

서 선도기관과 협조하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경찰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경찰의 인력 상 수 많은 문제를 경찰이 모두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청소년 선도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청소년 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뒤에서 언급할 가해 청소년 선도에도 경찰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최후의 수단은 형사사법적 처리이다. 그러나 경찰의 역할이 처벌에만 그친다면 비행을 오히려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경찰 내부에 소년사건 담당부서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 폭력 전담반을 구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가, 사회과학 전공자 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 2. 학교폭력 예방 운동

폭력이 발생한 후 대처하기보다는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이다. 특히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의 일차적인 임무가 범죄 예방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만이 모든 임무를 전담할 수도 없으며 사안 자체가 학교 폭력이기 때문에 경찰이 앞장을 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문제가 있다. 학교 폭력의 예방은 일차적으로 학교가 담당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 역시 적극적으로 예방 운동에 동참하여야 하며 각종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방 운동이 긴밀한 협조 체제에서 운영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힘들다. 여기에 경찰의 주된 역할이 있다. 이러한 예방 운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예산을 보조하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등 경찰이 담당해야 할 임무는 막중하다.

다음과 같은 방안을 활용한다면 학교 주변의 폭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1) 조사된 바에 의하면 금품갈취 등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예측 가능하다. 어머니회와 연계 하에 본 모임 자원봉사원의 지도로 학부모가 직접 이러한 지역을 지키는 운동을 전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동부지청에서 이와 유사한 시민 운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있었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 후 중단되었다.

2) 조사된 바에 의하면 집단 폭력을 포함한 심한 폭력은 특정 기간과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시험 전후에 부정행위를 강요하는 폭력이 많이 발생하며, 집단 폭행은 교내 특정 지역에서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가 간단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지역을 찾아내어 철저히 감시하며 아울러 시험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한다면 학교 폭력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주로 전자랜드, 청계천 전자상가, 대학로, 한강 고수부지 등 학생들이 자주 출입하는 지역에서 금품갈취 등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에 경찰이나 시민단체의 자원봉사자 등이 순찰을 강화하여 예방한다.

4) 폭력을 위시한 청소년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역시 유흥가 등 우범지역이다. 우범지역의 업소 주인들의 모임을 만들어 청소년을 자발적으로 출입을 시키지 않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 폭력을 미연에 예방한다.

5) 우리사회에 만연된 폭력 비디오, 영화, 만화, 잡지, 컴퓨터 게임 등을 관계 기관과 연계 하여 모니터하며 추방 운동을 전개한다.

6) 사회 봉사에 뜻이 있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을 연계해 주는 운동을 전개한다. 외국의 Big Brother, Big Sister 운동과 유사한 형태의 자원 봉사 단체를 결성하여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과 대학생을 연계하여 가해 청소년과 피해 청소년 모두를 돕는 동시에 학교 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예방을 한다.

### 3. 가해 학생 선도

청소년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은 비행 성향이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데 있다. 청

소년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벌이 아니라 선도이다. 그러나 형사사법기관의 한계성 때문에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이 처벌에 중점을 두어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각종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처벌보다는 선도에 역점을 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어떠한 기관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앞장을 설 때 학교 폭력을 위시한 청소년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가해 학생 선도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 첫째는 학교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선도기관의 활성화이며, 둘째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제도적인 선도 방안이다. 우선 사회단체가 주도할 수 있는 선도 활동에 대해 알아 보자.

1)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여러 선도기관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예산 부족, 전문가 부족으로 인하여 유명 무실한 기관을 국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모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문제 청소년은 문제가정에서 나온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교육이 때에 따라서는 청소년 교육보다 더 필요한 가정도 있다. 또한 자녀가 문

제를 일으킬 때 어찌할 지 모르는 부모도 많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2) 이러한 기관과 학교와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

교 상담실이 아무리 잘 운영된다고 하여도 학교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학교와 선도기관과 연계되어 문제학생에 맞는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연계해 주는 것이 상담교사의 일차적인 역할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선도기관에 보내진 학생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배려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제도로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다른 기관에 교육의뢰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 역시 조속히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3) 마지막으로 현재 형사사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본질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호관찰제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 기존의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한다. 형사사법기관은 명목상으로는 선도이나 사실 처벌을 통한 선도인 것이다. 현행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보면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소년원에서 감호가 일차적이지 교육이 아니며, 수강명령, 사회봉사

**비행 청소년 문제에 대해 국가 기관이 처벌에 중점을 두어 개입하면 할수록 문제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각종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처벌보다는 선도에 역점을 둔 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명령 등 제도는 도입되었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대학교수나 사회저명 인사들이 한두번 나와 소위 “좋은 말”을 해 보아야 별 효과가 없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 기간 역시 1-2일 아니면 기껏해야 1주일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상당히 장기간 교육이 필요하다. 하루이틀에 선도될 청소년들이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도 없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 IV.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비행의 문제점을 학교 주변 폭력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학교 주변 폭력의 실태를 보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그 흉포성 역시 성인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치달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일부 불량학생들의 문제로 간주하여서는 안되며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와 경찰을 비난하고, 경찰 역시 학교를 비난하고, 학교 당국은 청소년문

제는 “문제가정”의 문제로 오히려 부모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심지어는 피해를 당하고 학교를 찾아온 부모에게 “아이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싸움”인데 찾아와 귀찮게 한다고 비난을 해서는 더욱 안될 것이다.

학교 주변 폭력이 어느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가정은 가정대로 해야 할 일이 있다. 학벌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명문대학을 원치 않는 부모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1등은 한 명뿐일 수밖에 없기에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담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가정에서 벗어나 불량친구를 사귀며 자기보다 약한 학생을 괴롭히는 문제학생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 자식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사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이며,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항상 자녀에게 애정과 관심,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아야 한다.

학교 당국 역시 구조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교사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라겠는가?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인성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학부모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리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학교 주변의 폭력마저 책임을 전가한다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감추거나 무마해버리는 현재의

관행은 지양되어야 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상담실을 적극 활성화하여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돕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한편 경찰을 위시한 사법당국 역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은 범죄이다. 범죄 문제에 대해 경찰이나 사법당국이 학교나 가정의 문제에서 야기된 사소한 아이들 싸움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방관만 해서 안된다. 우범지역에 대한 철저한 순찰과 단속,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그리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구조적인 부조리와 폭력을 허용하는 문화가 근절되어야 한다. 청소년은 사회적 진공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사회에 문제 청소년이 많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문제 어른이 많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어른들이, 특히 힘있는 어른들이 법을 지키고, 힘을 이용하여 권력과 축재에 사용하기보다는 약한 사람을 돕는 사회가 되었을 때, 그리고 힘을 남용한 힘있는 어른들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힘의 남용이 더 이상 용납되지 못할 때 청소년 역시 주먹의 힘을 이용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학교 주변 폭력이 근절될 것이다.

참고 문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대화광 (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 (제 11회 특수 상담 사례연구 자료집)  
교육부 (1995), 주요 현안 보고  
교육부 (1995), 학원 폭력 세미나 자료집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1996), 학교 폭력 막을 수 있다 (소식지 3호)